

2/19/23

설교 제목: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심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21 장 1-25 절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 (요 21: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절관주** 요 21:14
- (요 21:2)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 (요 21:3)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절관주** 눅 5:5
- (요 21:4)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 (요 2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절관주** 눅 24:41
- (요 21:6)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 (요 21:7)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겹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절관주** 마 8:7
- (요 21:8)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십 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 (요 21:9)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절관주** 요 18:18
- (요 21: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 (요 21: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쉰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 (요 21:12)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 (요 21:13)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 (요 21:14)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 내 양을 먹이라

- (요 21: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 (요 21:16)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 (요 21: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 (요 21: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 (요 21: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절관주** 요 12:33, 요 18:32, 빌 1:20
- (요 21:20)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절관주** 요 13:25
- (요 21:21)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 (요 21: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 (요 21:23)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절관주** 고전 4:5, 고전 11:26, 약 5:7, 계 2:25
- (요 21:24)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절관주** 요 15:27
- (요 21:25)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날날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절관주** 요 20:30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새벽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바로 그날 저녁 도마를 제외하고 방에 모여 있던 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불어 넣으시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지 며칠 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지 여드레만에 또 다시 도마를 포함한 열 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라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감동된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라는 심오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만나 직접 대화까지 나누었음에도 예수님이 눈 앞에 보이지 않게 되자 제자들은 다시 소망을 잃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를 근심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이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인 갈릴리로 갑니다. 우선 그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유지하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뜻밖에 예수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간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배에 올랐으나 새벽이 되도록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요 21: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요 21:2)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dana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요 21:3)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 21:4)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날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그날도 이날처럼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와 물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으십니다.

(요 2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애들아”하고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보고도, 3 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 다니며 배우고 받은 사명을 모두 잊은 채 낙심하며 근심하는 제자들이 답답하기도 하련마는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대하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최대 사명은 영혼 구원, 곧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면 잡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전직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밤새워 새벽까지 그물을 던졌건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는데, 그물을 한 번도 던져 본 적이 없는 전직이 목수였던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요 21:6)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들다'는 '끌다' '잡아 당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6 장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이라고 했을 때 사용한 단어와 같습니다.

(요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므로 본절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의 뜻하는 바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낚는 사명은 온전히 주님을 믿고 순종하여 따를 때만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재능과 경험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결과는 처참한 실패뿐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한은 그제서야 지금 자신들에게 지시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차리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라고 말합니다.

요한으로부터 이말을 들은 베드로는 곧바로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요 21:7)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걸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요 21:8)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십 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요 21:9)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떡과 고기를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려 물고기를 세어 보니 153 마리였습니다.

(요 21: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요 21: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쉰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저자 사도 요한이 왜 그냥 “잡은 물고기가 심히 많았더라”라고 하지 않고 153 마리라고 그 숫자를 밝혔느냐는 것입니다.

게마트리아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에 숫자 값을 정해 놓고 각 단어의 철자를 숫자로 환산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바꾸어 숫자로 환산하고 그것을 합치면 짐승을 뜻하는 숫자 666 이 됩니다.

153 은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히브리어 ‘베니 하 엘로힘’을 게마트리아한 것과 같은 숫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153 이라는 숫자를 굳이 언급한 것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과 땅의 사람 두 부류로 분류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아서 본절을 통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득 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음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예수님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졌었습니다.

(눅 5:5)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눅 5:6)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런데 이번에는 고기가 많이 잡혔음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사도 요한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한 데에도 사도 요한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직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지라도 그들 중 대부분은 그물 밖으로 다시 빠져 나갔으나, 이제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 안으로 들어온 물고기는 절대로 다시 빠져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 것입니다.

식사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물음에 그러하다고 답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요 21: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 21:16)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요 21: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 그것은 유대인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아 얼떨 곁에 그런 것이고 실상은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런 행동을 하고 나서 곧 후회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신 예수님을 무척 그리워합니다.

베드로는 요한이 주님이라고 하자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단숨에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선뜻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일이 베드로의 가슴 한켠에 부담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주신 이래로 항상 ‘베드로’라고 부르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고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갈대 곧 연약한 인간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을 보는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베드로와 같이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 아래서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배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신상 앞에서 분항하고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그들을 향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같은 것들이 무슨 주의 일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너희 같은 것들을 사랑하겠느냐?” 등등의 말로 정죄했고, 그들은 베드로가 죄책감으로 선뜻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던 것처럼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은 “네가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단 말이냐?”라며 문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신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시몬’ 곧 ‘갈대’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더 이상 죄책감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알게 된 초대 교회 교인들도 회복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시겠구나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래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요 21: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 21: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 큰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입은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드렸습니다.

자신이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은 베드로는 요한의 장래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 21:20)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요 21:21)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아직도 연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장래를 물은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어찌되던 상관말고 너는 따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요 21: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 21:23)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하신 것이러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괴로워합니다.

사탄은 어김없이 이런 우리를 찾아와 정죄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같은 것이 무슨 주의 일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이 너같은 것을 사랑하겠느냐?”

우리는 죄인입니다.

원죄로 인해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고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 주님이 주신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이시간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회복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낚는 사람은 한 명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